

##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Child Abuse and Child, Par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이 재 연\*\*

Lee, Jae Yeon

한 지 숙\*\*\*

Han, Ji Sook

### Abstract

Participants in this study of variables that contribute to child abuse were parents of 1,094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instrument, Straus's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1998), consists of 3 subscales :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e degree of child abuse varied by age of child and parents,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the stress of bringing up children, social support, and family setting. There was a higher tendency to child abuse among alcoholic parents, dissatisfaction with marriage, parental child rearing stress, and isolation from social support. Educational and social welfar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hild abuse.

**Key Words** : Child Abuse, Marital Satisfaction, Stress, Social Support, Family Setting

\* 접수 2002년 12월 31일, 채택 2003년 2월 18일

\* 본 연구는 2000년도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E-mail : han21queen@hanmail.net

## I. 서론

오늘날 많은 아동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생명까지 위협 받는 상태에 놓이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내에서 주양육자에 의해 발생되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사'라는 이유로 거의 공개되지 못하고 장기간 가족내에 숨겨지는 일이 많으며 심한 손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르러서야 우리 주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친권'이라는 명목하에 자녀를 구타하고 폭언을 일삼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심지어 친부나 계부가 딸을 성폭행하는 등 발생하는 각종 학대 사례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의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체벌을 훈육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해 왔으며, 때문에 감정을 실어 매를 때려도, 아동의 몸에 심한 상처가 나도 그것은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지 결코 학대 차원의 구타로 여기질 않는 것이 상례처럼 여겨져 왔다. 체벌에 대한 찬반 논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체벌이 학대의 전조가 되며, 학대로 인하여 신체불구, 정서장애, 비행, 대인관계 장애 등의 후유증 이외에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동이 장차 성인이 되어 학대를 받지 않고 자란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2001년도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전국아동학대현

황보고서에 따르면(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2), 아동학대사례의 80% 이상이 가정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이 34.6%, 성격문제 13.7%, 알콜 및 약물남용 11.7%, 신체 및 정신장애 6.9%, 사회적 고립 2.7%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된 보건복지부 정책과제(정영순, 2002)에서는 아동학대와 학대행위자의 알콜 및 약물남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안동현(2002)은 알콜이 의식·기억력·감정조절·충동조절 등을 변하게 만들어 자녀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콜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의 알콜이나 약물남용은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영국에서는 학대신고건수의 25%가 부모의 알콜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나(Forrester, 1999), 부모의 알콜문제가 일부 학대자나 특정학대 유형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제기되기도 하였다(Gelles, 1997). 이외에도,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불만의 해소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으며(황영희, 1983), 부모 자신이 과거 어린 시절에 학대행위를 경험할 때,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고(이주희·이양희, 2000), 부모의 과거 피학대 경험과 현재 자녀에 대한 학대정도 및 유형에서 순위와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임현정, 1995). 그러나, 학대경험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학대부모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학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외에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Adler-Baeder, Margot, 1999), 어머니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스트레스는 처벌적인 훈육행동을 유발하고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부모의 여러 다양한 성격적·정신병리적 특성 및 알콜이나 약물중독,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아동기학대 경험,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등이 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아동학대의 발생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부모 개인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아동, 가족, 사회, 문화적인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발생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우선 안혜영(1998)은 정신병리학적, 사회학습이론적, 사회체계적, 생태학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보고 있으며, 지주예(2002)는 아동학대 발생요인을 정신병리학적, 발달학적, 사회학습이론적, 사회체계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학대부모들의 심리적 특성 및 성격구조상의 결함에 초점을 두어 학대부모들의 성격문제, 알콜중독 등을 학대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발달학적 관점은 학대부모가 아닌 아동 개인이 가지는 신체적·행동적 특성이 아동학대를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아동의 성격적·기질적 특성, 신체질환 등 아동의 부정적인 특성이 양육자의 학대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질적·성격적 특성 외에도 아동의 연령이 학대와 관련이 있다

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traus, 1994). 사회학습이론은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이후 성인기에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세대간 전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회체계이론은 아동의 형제수, 가족크기, 결손가족, 경제 등 구조적 불평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한다고 보며, 생태학적 관점은 학대가 개인과 가족의 특성, 이웃, 지역사회와의 부조화 등으로 학대가 야기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아동, 부모, 가족,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과 관계가 있으며, 어느 한 특정요인으로 아동학대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본 연구에서도 다이론적 접근으로 아동학대 원인을 설명하려는 입장을 지지하며, 선행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부 아동 및 부모 특성, 가족환경 변인들을 선정하여 아동학대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국단위의 일반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학대원인이라고 밝혀진 아동, 부모, 가족환경 특성과 각 특성에 따른 학대 정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특성(연령, 성)과 부모특성(연령, 성, 음주정도,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기 피학대 경험)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는 어떠한가?

2. 가족환경(세대유형, 가족형태, 주택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체벌 : 손이나 회초리같은 물체로 손바닥, 엉덩이, 종아리 등을 때리는 행위

구타 : 주먹이나 발, 몽둥이 등으로 합부로 마구 때리는 행위

(예 : 주먹으로 때리거나 심하게 걷어차기, 내던지거나 때려눕히기 등)

폭행 및 상해 : 난폭한 행동 및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형법에서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협박행위 포함. 예 : 고의로 화상을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목조르고 위협하는 행위 등)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국 우편번호부를 토대로 지역비례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전국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94가구를 표집하였다. 즉,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참조하여 각 시·도의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는바, 전국 8도(제주도 제외), 1특별시, 6광역시, 10개 군을 52개 조사구로 편성하여 전국 42개 동, 10개읍에서 평균 약 20여가구씩을 추출하였다. 각 조사구의 가구수는 전국 인구비율과 단독주택 대 연립 및 아파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단독주택 대 연립 및 아파트의 조사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하였다.

조사가구의 응답자 및 부모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각 결과에 따른 통계표의 응답자수가 다른 이유는 무응답이거나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비해당)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친모가 83.6%, 친부가 16.1%로 나타나 응답자의 99.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가 51.7%로 가장 높았고 96.2%가 20-40대에 속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30대가 부

53.4%, 모 52.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십대부모도 부 0.2%, 모 0.1% 있었다. 교육수준에서는 응답자, 부와 모 각각 고등학교 졸업이 59.4%, 48.9%, 60.1%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수준인 부가 86.7%, 모가 80.7%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응답자의 57.9%가 주부였으며, 부는 서비스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가 21.8%, 모는 68.8%로 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부의 경우 무직도 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별 월평균소득은 부의 경우 100~150만원 미만이 30.1%로 가장 많았고 모의 경우 24.9%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최근 1년 동안의 가정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Straus(1998)의 부모-아동 갈등해결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 CTSPC)를 이용하였으며, 아동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신체학대(체벌 5, 구타 4, 폭행 4) 13문항, 정서학대 5문항, 방임 5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0~6)로 구성되었으며, 0은 최근 1년간 절대 하지 않았다,

〈표 1〉 응답자 및 부모특성 N(%)

일반적 특성	응답자	부	모
친모	915(83.6)	-	-
친부	175(16.1)	-	-
계모	2( 0.2)	-	-
양부	1( 0.1)	-	-
외조모	1( 0.1)	-	-
계(수)	1,094(100.0)	-	-
연령			
19세 이하	3( 0.3)	2( 0.2)	1( 0.1)
20~29세	197(18.0)	70( 6.6)	211(19.4)
30~39세	566(51.7)	562(53.4)	575(52.8)
40~49세	290(26.5)	364(34.6)	275(25.3)
50세 이상	38( 3.5)	55( 5.2)	26( 2.4)
계(수)	1,094(100.0)	1,053(100.0)	1,088(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2( 5.7)	49( 4.7)	67( 6.2)
중학교	139(12.8)	90( 8.6)	141(13.0)
고등학교	647(59.4)	514(48.9)	651(60.1)
대학이상	241(22.1)	397(37.8)	224(20.6)
계(수)	1,094(100.0)	1,053(100.0)	1,088(100.0)
직업			
주부	634(57.9)	-	749(68.8)
서비스상접과	147(13.3)	230(21.8)	108(10.0)
시장판매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	74( 6.8)	-	85( 7.9)
단순노무직	69( 6.3)	61( 5.8)	61( 5.6)
기술공 및전문가	39( 3.6)	104( 9.9)	34( 3.1)
기능직	33( 3.0)	195(18.5)	21( 1.9)
기계·장치 조작원	20( 1.8)	114(10.8)	-
전문가	18( 1.6)	81( 7.7)	11( 1.0)
사무직	15( 1.4)	118(11.2)	11( 1.0)
농·어·축,부동산,	8( 0.7)	19( 1.8)	8( 0.7)
건설업대주			
입법·공무원·	4( 0.4)	75( 7.1)	-
고위임직원관리자			
무직	33( 3.0)	58( 5.4)	-
계(수)	1,094(100.0)	1,053(100.0)	1,088(100.0)
월평균소득			
소득없음	-	62( 5.8)	818(75.1)
50만원 미만	62( 6.0)	26( 2.4)	72( 6.6)
50~100만원 미만	163(15.0)	140(13.2)	117(10.0)
100~150만원 미만	304(28.0)	317(30.1)	33( 2.6)
150~200만원 미만	238(22.0)	245(23.2)	16( 1.5)
200~250만원 미만	149(14.0)	134(12.7)	11( 0.7)
250만원이상	170(15.0)	127(12.0)	22( 2.0)
계(수)	1,094(100.0)	1,053(100.0)	1,088(100.0)

1은 1회, 2는 2회, 3은 3~5회, 4는 6~10회, 5는 11~20회, 6은 20회 이상 학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스트

레스와 관련해서는 서혜영(1992)이 번안한 A-bidin(1990)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척도 (Parenting Stress Index : PSI/SF)를 활용하였다. PSI는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는데, 부모의 스트레스(부모영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관계 영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아동영역)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Cronbach  $\alpha$  계수는 .85이다. 또한 아동기피학대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미(1999)의 체벌받은 경험조사도구를 활용하였고,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계수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문조사원 2인이 각각 서울지역 2가구씩을 방문·면접하였고,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표를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12월 중순부터 2000년 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가정복지과를 통해 해당 행정구역의 동사무소로 가구명부 출력 등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추출된 각 가구를 전문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는 직접면접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행동과 관련해서는 부와 모 모두의 행동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한쪽 배우자가 나머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 가구당 조사하는데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아동, 부모특성별 학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변량분석으로 F값을 산출하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대 평균을 구하기 위해 척도를 점수화하였으며, 0(절대하지 않았다)은 0점, 1(1회)은 1점, 2(2회)는 2점, 3(3-5회)은 4점, 4(6-10회)는 8점, 5(11-20회)는 15점, 6(20회 이상)은 25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화는 CTS1의 매뉴얼(Straus, 1995)과 Straus와 Gelles(1990b)에 설명된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아동기 피학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정도를 보기 위해 이를 다시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쳐 '상', '그저 그렇다'를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약간 그렇지 않다'를 합쳐 '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아동과 부모특성별 학대 실태

아동의 연령별에 따른 학대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신체학대 중 체별은 3-5세(M=4.03, SD=3.04)가 가장 높았고, 1년 평균 4회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의 경우, 체별과 마찬가지로 3-5세의 평균(M=1.37, SD=1.94)이 가장 높았고, 1년 평균 1회 정도 행하고 있었다. 이어서 6-8세(M=1.29, SD=1.83), 9-11세(M=1.09, SD=1.65)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아기, 학령기 아동이 구타를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및 상해의 경우는 15-17세 아동의 평균(M=.62, SD=1.4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평균 1회 미만이었다. 정서학대는 3-5세 아동의 평균(M=5.78, SD=3.94)이 가장 높았고, 6-8세(M=5.73, SD=3.94), 9-11세(M=5.11, SD=3.8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1년 평균 5회정

<표 2> 아동 연령별 아동학대 발생정도 M(SD)

	신 체 학 대				
	체 별	구타	폭행 및 상해	정서학대	방 임
1세미만	.39 (1.14)	.04 (.27)	.02 (.14)	.66(1.78)	.15 (.61)
1-2세	2.96(2.84)	.63(1.31)	.15 (.76)	3.46(3.30)	.41(1.14)
3-5세	4.03(3.04)	1.37(1.94)	.18 (.60)	5.78(3.94)	1.07(2.44)
6-8세	3.20(2.82)	1.29(1.83)	.25 (.82)	5.73(3.72)	1.43(2.51)
9-11세	1.87(2.46)	1.09(1.65)	.21 (.78)	5.11(3.80)	1.85(2.60)
12-14세	1.04(1.49)	.60(1.28)	.22 (.90)	3.93(3.70)	2.00(2.94)
15-17세	.83(1.68)	.62(1.45)	.46(1.26)	3.42(3.69)	2.21(3.27)
F	42.58***	8.11***	4.44***	9.97***	9.06***

\*p<.05 \*\*p<.01 \*\*\*p<.001

도 정서학대를 받고 있었다.

방임은 15-17세(M=2.21, SD=3.27), 12-14세(M=2.00, SD=2.9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방임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체별, 구타, 정서학대는 3-5세, 6-8세 순으로 높았으며, 방임과 폭행 및 상해는 15-17세의 청소년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구가 커진 청소년

〈표 3〉 부모 연령별, 성별 아동학대 발생정도 M(SD)

	신 체 학 대						정 서 학 대		방 입	
	체 별		구 타		폭 행 및 상 해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29세 이하	1.63 (2.76)	4.48 (5.06)	.36 (1.49)	1.22 (2.61)	.00 (.03)	.22 (.89)	2.01 (2.89)	4.68 (4.47)	.55 (1.99)	.85 (2.21)
30-39세	1.02 (2.00)	3.79 (4.03)	.36 (1.15)	1.28 (2.22)	.03 (.25)	.18 (.94)	2.31 (3.06)	5.62 (4.20)	.65 (1.81)	1.16 (2.14)
40-49세	.43 (1.23)	1.70 (3.45)	.22 (.83)	.48 (1.26)	.01 (.10)	.02 (.12)	1.73 (2.83)	4.33 (4.31)	.85 (1.97)	1.38 (2.47)
50세 이상	.21 (.68)	.78 (.97)	.12 (.39)	.29 (.73)	.00 (.00)	.05 (.21)	1.92 (3.18)	3.12 (4.28)	1.04 (2.26)	2.32 (3.22)
F	8.67****	7.37***	1.22	4.12**	.69	1.86	2.18	4.40**	1.06	1.98

\*\*p<.01 \*\*\*\*p<.0001

에게는 가벼운 체벌이나 정서학대를 자주 행하지는 않지만 한번이라도 신체학대를 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행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비록 유아나 학령기 아동에 비해 수치는 낮지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도 체벌이나 구타, 폭행 및 상해 등의 심각한 신체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아동 성별에 따른 학대실태를 살펴본 결과 남, 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부모의 연령 및 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의 연령에 따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신체학대 중 체벌은 부의 연령과 모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20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체벌 평균이 가장 높았는데 아버지들은 1년 평균 1회, 어머니들은 1년 평균 4회 정도 체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체벌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타의 경우는 부의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모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만 나타났는데, 30대의 어머니가 구타 평균(M=1.28, SD=2.22)이 가장 높았다.

정서학대의 경우도 부의 연령에 따른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모의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만 나타났다. 30대 어머니가 정서학대를 가장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1년 평균 5회 정도였다(M=5.62, SD=4.20). 한편, 부모 연령에 따른 방입 실태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모의 평균이 부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 바, 부모 연령이 20~30대인 경우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를 좀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학대를 더 자주 하고 있었다.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아동학대실태를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들은 구타와 방입에서 각각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들의 음주빈도가 잦은 경우에, 구타나 방입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폭행 및 상해를 제외한 체벌, 구타, 정서학대, 방입 등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4) 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정도 M(SD)

		신 체 학 대			정 서 학 대	방 입
		체 별	구 타	폭 행 및 상 해		
부	전혀 안함	1.87(2.10)	.62(1.00)	.02(.08)	4.08(3.67)	1.04(2.07)
의	1년 1-2회	1.89(2.25)	.72(1.23)	.13(.49)	3.85(3.29)	.68(1.41)
음	1달 1-2회	2.64(3.08)	.61(1.23)	.09(.41)	4.38(4.18)	1.11(2.39)
주	1주일 1-2회	2.20(2.58)	.66(1.27)	.07(.43)	4.14(3.81)	1.15(2.36)
정	매일	2.54(3.13)	1.30(2.43)	.16(.58)	5.21(4.51)	1.37(2.93)
도	F	1.69	3.68**	1.64	1.75	2.53*
모	전혀 안함	1.96(2.43)	.62(1.24)	.05(.25)	3.89(3.81)	1.02(2.12)
의	1년 1-2회	2.23(2.38)	.60(1.04)	.12(.44)	4.07(3.66)	.94(2.16)
음	1달 1-2회	2.65(3.16)	.86(1.40)	.08(.44)	4.89(4.02)	1.30(2.49)
주	1주일 1-2회	2.85(3.15)	.85(2.30)	.20(.90)	4.78(4.82)	1.45(2.95)
정	매일	5.50(4.70)	2.05(4.18)	.15(.36)	6.55(7.23)	5.93(8.60)
도	F	3.27**	7.19****	1.84	2.59*	3.57**

\*p<.05 \*\*p<.01 \*\*\*p<.001 \*\*\*\*p<.0001

매일 술을 마시는 어머니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주 체벌이나 구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어머니들은 1년 평균 약 체벌을 6회, 구타는 2회, 정서학대는 7회, 방임은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나 음주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아동을 학대상황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녀양육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학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체벌, 구타, 폭행 및 상해, 정서학대, 방임 유형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참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감 혹은 임신 때문에 자신의 일을 포기하거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체벌이나 구타, 정서학대, 방임 등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 즉 자녀에 대해 거부하는 마

음이 클수록 학대를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아이가 자주 울고 짜증내거나, 변덕스럽거나, 부모를 성가시게 하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지 않을 때, 그리고 화나게 할 때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더 잦았으며 특히 아이가 울고 짜증내거나 성가시게 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신체학대인 폭행 및 상해까지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부모를 자극하여 학대를 더 자주, 심각한 수준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6>은 결혼만족도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본 결과로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생활에 대해 성공적이고, 희망적이고,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평균이 낮은 경우에, 체벌이나 구타, 폭행 및 상해 등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을 더 자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부부간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대한 평균이 높을 때, 체벌이나 구타, 정서학대, 방임 등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폭행



〈표 5〉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정도 M(SD)

문항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체별	구타	폭행 및 상해			
부모 책임감 때문에 많은 부분 포기	상	2.6(2.9)a	.8(1.5)a	.1(.5)	4.7(4.1)a	1.2(2.5)
	중	1.9(2.4)b	.6(1.1)b	.1(.4)	4.4(3.7)ab	1.5(2.4)
	하	1.9(2.5)b	.6(1.2)b	.1(.3)	3.6(3.7)b	.9(2.0)
	F	4.2**	21.1***	1.0	4.2**	2.9
임신 이후 하고 싶은 일 포기	상	2.5(2.8)a	.8(1.5)a	.1(.4)	4.5(3.9)ab	1.1(2.3)
	중	2.5(2.7)a	.9(1.4)a	.1(.4)	5.0(4.1)b	1.3(2.1)
	하	1.8(2.4)b	.6(1.2)b	.1(.5)	3.7(3.9)a	1.2(2.5)
	F	4.3**	21.5***	.1	3.7*	.7
아이가 웃지 않음	상	1.8(1.9)	.6(1.2)a	.1(.3)	4.6(3.9)ab	1.3(2.4)ab
	중	2.6(2.9)	.9(1.2)b	.1(.4)	6.3(4.1)a	2.5(3.5)b
	하	2.3(2.8)	.7(1.4)ab	.1(.4)	4.2(3.9)b	1.0(2.2)a
	F	1.3	20.2***	.1	4.0**	8.2***
아이가 기대만큼 못함	상	2.2(3.1)a	.9(1.5)ab	.1(.6)	4.9(4.4)a	1.7(3.2)b
	중	3.0(2.9)b	1.0(1.6)a	.1(.4)	5.8(4.1)b	1.4(3.0)ab
	하	2.2(2.6)a	.6(1.3)b	.1(.4)	3.9(3.7)c	.9(1.8)b
	F	3.2*	24.3***	.8	8.6***	11.1***
아이에게 따뜻한 마음 안생김	상	2.9(3.1)a	.9(1.6)a	.1(.4)	5.3(4.0)a	1.5(2.7)a
	중	2.2(2.5)ab	.9(1.4)a	.1(.5)	5.2(4.3)ab	1.6(3.0)ab
	하	1.8(2.3)b	.5(1.1)b	.1(.4)	3.4(3.6)b	.8(1.9)b
	F	11.0***	29.1***	1.4	15.7***	11.4***
아이가 울고 짜증냄	상	3.1(3.3)ab	1.0(1.7)a	.1(.5)a	5.5(4.4)a	1.0(2.3)
	중	3.6(2.8)a	1.1(1.6)a	.3(1.0)b	5.6(4.4)a	1.6(3.1)
	하	2.0(2.5)b	.6(1.2)b	.1(.3)a	3.9(3.7)b	1.1(2.3)
	F	12.4***	24.3***	8.3***	9.9***	2.0
아이의 기분이 쉽게 변함	상	2.9(2.9)ab	.8(1.3)ab	.1(.6)	5.4(4.3)b	1.4(2.8)ab
	중	3.1(3.4)b	1.2(2.2)b	.1(.3)	4.9(4.5)ab	1.6(3.3)b
	하	2.0(2.5)a	.6(1.2)a	.1(.4)	4.0(3.7)a	1.0(2.1)a
	F	6.7***	23.4***	1.3	6.8***	4.2*
아이가 성가시게 함	상	3.4(3.2)b	1.0(1.8)b	.2(.6)	5.4(4.2)a	1.2(2.7)
	중	3.0(2.5)ab	1.0(1.3)b	.1(.4)	5.1(4.0)ab	1.2(2.0)
	하	1.7(2.3)a	.5(1.1)a	.1(.3)	3.7(3.7)b	1.1(2.3)
	F	22.3***	29.0***	3.8**	12.0***	.3
아이의 불규칙한 취침	상	2.7(2.8)a	.8(1.4)a	.1(.5)	4.7(3.9)	1.3(2.6)
	중	2.8(2.8)a	.6(1.1)b	.1(.2)	4.7(3.8)	.8(1.4)
	하	2.0(2.6)b	.6(1.4)b	.1(.4)	4.0(4.0)	1.1(2.3)
	F	4.9**	21.2***	.2	2.2	1.5
아이가 화나게 함	상	3.2(3.2)a	1.0(1.7)a	.1(.4)	5.7(4.3)a	1.3(2.6)ab
	중	3.1(2.6)ab	1.0(1.6)a	.1(.5)	5.5(3.9)ab	1.6(2.9)a
	하	1.7(2.3)b	.5(1.1)b	.1(.4)	3.5(3.5)b	1.0(2.1)b
	F	17.4***	28.5***	1.4	21.2***	4.3*

\*p<.05 \*\*p<.01 \*\*\*p<.001

알파벳 소문자는 사후검증 결과이며,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6> 결혼만족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정도 M(SD)

결혼만족도		신 체 학 대			정 서 학 대	방 임
		체 별	구 타	폭 행 및 상 해		
성공적임	상	2.0(2.6)a	.6(1.2)a	.1(.3)	3.8(3.7)a	.9(2.0)a
	중	2.7(3.1)b	.8(1.6)ab	.1(.6)	4.9(4.2)ab	1.4(2.7)b
	하	2.6(2.5)b	.9(1.5)b	.1(.4)	5.5(4.0)b	1.4(2.7)b
	F	3.5*	3.2*	1.9	7.2***	6.3***
희망적임	상	2.1(2.5)a	.6(1.2)a	.1(.4)	4.0(3.8)a	.9(2.1)a
	중	2.7(3.2)ab	1.1(1.9)b	.2(.6)	5.1(4.2)ab	1.7(3.0)b
	하	4.1(3.9)b	.9(1.6)ab	.2(.7)	5.9(4.3)b	1.8(3.1)b
	F	6.4***	7.2***	4.0**	7.3***	9.5***
만족감을 제공	상	1.9(2.3)a	.6(1.2)a	.1(.4)	3.7(3.6)a	1.0(2.3)a
	중	2.4(2.9)ab	.7(1.3)a	.1(.2)	4.4(4.0)ab	1.1(2.3)a
	하	3.1(3.3)b	1.0(1.8)b	.2(.7)	5.5(4.4) b	1.3(2.6)b
	F	6.6****	6.0***	3.6*	9.3***	2.8*
신뢰를 못함	상	2.8(2.8)	.8(1.6)	.1(.3)	5.6(4.7)a	1.7(3.0)a
	중	2.2(2.8)	.6(.9)	.1(.6)	4.9(5.0)ab	1.6(2.7)a
	하	2.2(2.8)	.7(1.4)	.1(.4)	4.1(3.7)b	1.0(2.2)b
	F	1.0	2.5	.1	5.7***	5.5***
험한 말이 오감	상	3.1(3.2)a	.9(1.5)a	.1(.4)	5.3(4.5)a	1.2(2.5)
	중	2.1(2.5)b	.9(1.4)a	.1(.4)	4.2(3.2)ab	1.0(1.8)
	하	2.0(2.4)b	.6(1.3)b	.1(.4)	3.8(3.7)b	1.1(2.3)
	F	8.1***	5.3**	.8	8.5***	2.6*
집어던짐	상	3.3(3.6)a	1.1(2.1)a	.1(.5)	6.0(5.0)a	1.5(2.6)a
	중	2.3(2.0)b	.5(1.0)b	.1(.3)	4.7(3.6)ab	1.5(2.5)a
	하	2.2(2.6)b	.7(1.2)ab	.1(.4)	4.0(3.7)b	1.0(2.3)b
	F	4.5**	5.7**	.7	8.6***	4.0**
때리기도 함	상	4.2(4.4)a	1.5(2.8)a	.3(1.0)a	7.2(5.5)a	2.4(3.8)a
	중	2.4(2.7)b	1.1(1.5)ab	.1(.2)b	4.1(3.5)b	.9(1.9)b
	하	2.2(2.6)b	.6(1.2)b	.1(.3)b	4.1(3.7)b	1.0(2.2)b
	F	6.5***	8.2***	8.2***	11.5***	9.5***

\*p<.05 \*\*p<.01 \*\*\*p<.001

알파벳 소문자는 사후검증 결과이며,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및 상해 등의 매우 심각한 신체학대에 있어서는 수치는 미미하지만, 폭력 행사 및 결혼생활에 대해 덜 희망적이고 결혼생활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누

군가가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걱정해주고 도와줄 친척 혹은 좋은 이웃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구타나 정서학대, 방임 등을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덜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대가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모의 아동기 피학대경험 정도에 따른 자녀

<표 7> 사회적지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정도 M(SD)

사회적 지지		신 체 학 대			정 서 학 대	방 입
		체 별	구 타	폭행및 상해		
의지할 수 있음	상	2.3(2.8)	.7(1.3)a	.1(.4)	4.2(3.9)	1.0(2.3)
	중	2.0(1.9)	.7(1.1)a	.2(.6)	4.2(3.5)	1.7(2.5)
	하	2.2(2.6)	.9(1.7)b	.1(.4)	4.9(4.1)	1.3(2.7)
	F	.8	21.2***	.8	1.5	3.0
방안 제시해줌	상	2.3(2.7)	.6(1.2)a	.1(.4)	4.0(3.8)a	1.0(2.2)a
	중	2.4(2.3)	.9(1.2)b	.1(.5)	3.9(3.7)a	1.4(2.4)ab
	하	2.3(2.9)	.8(1.7)ab	.1(.4)	5.2(4.2)b	1.5(2.7)b
	F	.7	21.6***	.5	6.9***	8.22***
걱정해줌	상	2.3(2.7)	.7(1.2)a	.1(.4)	4.2(3.8)a	1.0(2.2)a
	중	3.0(3.2)	1.2(2.2)b	.2(.7)	5.6(4.5)b	1.8(3.2)b
	하	2.2(2.8)	1.0(1.9)ab	.1(.3)	5.1(4.5)ab	1.8(3.2)b
	F	1.6	23.1***	1.5	3.22*	5.6**
충고해줌	상	2.1(2.5)a	.6(1.2)a	.1(.4)	3.9(3.7)a	.9(2.1)a
	중	2.5(2.6)ab	.7(1.2)a	.1(.4)	4.6(3.8)ab	1.6(2.8)b
	하	2.9(3.7)b	1.0(2.0)b	.1(.4)	5.7(4.7)b	1.6(2.9)b
	F	3.6*	22.8***	.1	8.4***	8.4***
정보 제공해줌	상	2.8(2.6)	.7(1.3)	.1(.4)	4.0(3.8)a	.9(1.9)a
	중	2.3(2.4)	.7(1.1)	.1(.4)	4.5(3.7)ab	1.1(2.1)ab
	하	2.3(3.1)	.8(1.8)	.1(.4)	5.1(4.5)b	1.9(3.2)b
	F	.6	21.0***	.7	4.3**	16.5***
좋은 이웃 있음	상	2.1(2.5)a	.7(1.3)a	.1(.4)	4.0(3.7)a	.9(2.0)a
	중	2.8(2.6)b	.8(1.3)b	.1(.5)	4.7(3.9)ab	1.2(2.5)ab
	하	2.5(3.2)ab	.8(1.5)b	.1(.4)	4.8(4.3)b	1.5(2.9)b
	F	3.9*	10.7***	1.9	5.3**	6.4***
도와줄 친척들 있음	상	2.3(2.7)	.7(1.3)a	.1(.4)	4.2(3.9)	1.0(2.1)a
	중	2.6(2.9)	.9(1.6)b	.2(.6)	4.7(3.9)	1.6(3.1)b
	하	2.1(2.7)	.7(1.4)a	.1(.2)	4.7(.43)	1.6(2.8)b
	F	.6	20.8***	1.3	1.4	6.0**

\*p<.05 \*\*p<.01 \*\*\*p<.001

알파벳 소문자는 사후검증 결과이며,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학대 실태를 파악한 결과(표 8 참조), 앞에서 살펴본 양육스트레스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자녀에 대한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방임 등과 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자신이 아동기에 매 또는 회초리로 맞았거나 술이나 약에 취한 채 양육되어진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신체학대를 행사하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족환경특성에 따른 학대 실태

<표 9>는 가족환경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한 결과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형태와 가족형태, 주거 유형에 따라 방임 및 체벌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세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3세대나 4세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보다 방임하는 경우가 더 잦았다(M=1.22, SD=2.46). 그리고 편모

〈표 8〉 아동기 피학대 경험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정도 M(SD)

아동기 피학대경험		신 체 학 대			정 서 학 대	방 임
		체 별	구 타	폭행 및 상해		
나에게 야단치거나 고함을 질렀다.	상	1.7(2.2)	.8(1.1)	.0( .0)	4.9(3.5)	1.4(2.4)
	중	3.1(3.8)	1.6(2.4)	.0( .0)	6.6(5.9)	.8(1.4)
	하	1.5(1.7)	.5(1.0)	.1( .2)	3.3(3.4)	1.3(2.1)
	F	1.1	2.3	1.0	2.6	.2
나를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내쫓겠다고 했다.	상	.2( .1)	.6(1.2)	.0( .0)	5.0(5.3)	1.9(2.6)
	중	.0(9 .0)	.0( .0)	.09 .0)	.0( .0)	.0( .0)
	하	1.8(2.2)	.8(1.3)	.0( .2)	4.4(3.5)	1.2(2.2)
	F	2.7	.2	.7	.3	1.0
매나 회초리로 맞았다.	상	1.9(2.5)	.7(1.2)	.0( .1)	5.3(4.1)	1.5(2.5)
	중	3.2(3.7)	2.7(3.0)	.0( .0)	5.1(2.2)	.4( .6)
	하	1.4(1.7)	.6( .9)	.1( .2)	3.7(3.5)	1.3(2.2)
	F	1.7	5.2*	.6	1.8	.7
주먹으로 맞거나 심하게 걷어차였다.	상	1.9(2.3)	.4( .8)	.0( .0)	3.9(4.4)	1.6(2.2)
	중	.0( .0)	.0( .0)	.0( .0)	.0( .0)	.0( .0)
	하	1.7(2.2)	.8(1.3)	.0( .1)	4.5(3.7)	1.3(2.3)
	F	.0	.5	.4	.1	.2
고의에 의해 화상을 입었다. (예 : 뜨거운 물, 다리미, 담뱃불).	상	1.0( .0)	.0( .0)	.0( .0)	.0( .0)	.0( .0)
	중	.0( .0)	.0( .0)	.0( .00)	.0( .0)	.0( .0)
	하	1.7(2.2)	.7(1.3)	.0( .2)	4.5(3.7)	1.3(2.3)
	F	.1	.3	.1	1.5	.3
음식을 제때 먹지 못했다.	상	.9( .5)	.3( .4)	.4( .0)	6.4(6.4)	.3( .6)
	중	.0( .0)	.0( .0)	.0( .0)	11.2( .0)	.2( .0)
	하	1.8(2.2)	.8(1.3)	.0( .2)	4.2(3.4)	1.4(2.4)
	F	.4	.4	.5	2.8	.9
술이나 약에 취해 나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었다.	상	2.4(2.0)	1.0(1.2)	.0( .1)	3.9(3.6)	1.5( .9)
	중	6.0( .0)	4.2( .00)	.0( .0)	5.3( .0)	.0( .0)
	하	1.6(2.1)	.7(1.3)	.0( .2)	4.5(3.7)	1.3(2.3)
	F	2.3	3.8*	.0	.1	.2
나만 집에 혼자 있게 했다.	상	1.0(1.0)	.5( .8)	.0( .0)	6.8(6.5)	.4( .6)
	중	.9( .8)	1.2(1.7)	.0( .0)	4.4(2.9)	2.3(2.6)
	하	1.8(2.3)	.8(1.3)	.0( .2)	4.2(3.3)	1.4(2.3)
	F	.4	.2	.3	1.5	.9

\*p<.05

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편모가족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방임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M=3.92, SD=3.02). 이는 핵가족인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형태(M=1.19, SD=2.40)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주거유형에 따라서는 다세대주택(M=4.32, SD=3.88)에 사는 경우가 아파트나(M=2.32, SD=2.70) 단독주택(M=2.24, SD=

2.68)보다 체벌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주거공간 비율이 부모가 자녀와 가정내에서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여러 세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각종 소음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가족환경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정도 M(SD)

가 족 환 경	신 체 학 대			정 서 학 대	방 입	
	체 별	구 타	폭 행 및 상 해			
세 대 유 형	2세대	2.37(2.77)	.73(1.39)	.09(.45)	4.40(3.99)	1.22(2.46)
	3세대	1.72(2.17)	.64(1.55)	.02(.12)	3.63(3.55)	.51(1.27)
	4세대 이상	.10(.14)	.17(.29)	.00(.00)	2.70(3.76)	.27(.46)
	F	2.84	.41	1.45	1.88	4.76**
가 족 유 형	부부+자녀	2.37(2.77)	.72(1.39)	.09(.44)	4.37(3.95)	1.19(2.40)
	조부모부모손자	1.78(2.31)	.69(1.63)	.04(.21)	3.72(3.90)	.55(1.74)
	기타확대가족	.20(.00)	.00(.00)	.00(.00)	1.10(.00)	.00(.00)
	편부+자녀					
	편모+자녀	1.45(1.77)	.41(.45)	.15(.22)	7.20(3.22)	3.92(3.02)
	이혼가족					
	기타		.50(.00)	.00(.00)	7.00(.00)	.80(.00)
F	1.55	.13	.37	1.41	4.02**	
주 택 유 형	단독주택	2.24(2.68)	.64(1.27)	.05(.25)	4.27(3.92)	1.17(2.46)
	아파트	2.32(2.70)	.76(1.57)	.13(.56)	4.41(4.09)	1.19(2.38)
	연립	1.97(2.45)	.76(1.45)	.08(.41)	3.96(3.54)	.84(1.90)
	다세대	4.32(3.88)	.93(1.40)	.12(.29)	4.86(3.76)	.80(1.98)
	기타	1.73(2.20)	.88(1.26)	.12(.50)	4.03(3.96)	.94(2.08)
F	3.89**	.61	2.02	.36	.58	

\*\*p<.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94 가구의 부모를 직접 면접 조사하여 아동특성과 부모특성, 그리고 가족환경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특히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이 부모로부터 체벌이나 구타, 정서학대 등을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유아기나 학령기의 발달 특성 및 아동행동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2세 영아기 아동들도 체벌이나 구타, 정서학대 등을 비교적 자주 당하고 있고, 1세 미만의 영아도 전체적으로 1년 평균 1회 미만의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학대로 인한

후유증이나 심각성면에서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가 어릴수록 회초리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하다가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신체적 체벌을 덜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취학전 아동이 학대를 많이 받는 이유는 연령이 낮아 부모에게 저항할 힘도 없고, 이 시기가 아동이 가정을 가장 필요로 할 시기이며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대받을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 중 6세부터 13세까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연진영, 1992)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만 6세에서 11세 아동이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200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결과(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2)와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령이 더 어린 영유아의 경우 학대 발견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체벌이나 구타 등이 더 잦았는데, 그 이유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아직 부모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심리적, 경제적 불안정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켜 부모를 지치게 함으로써 아동을 더 많이 학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방임하는 정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가 자녀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자이며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자녀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고, 가정 살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권은주, 1977) 모가 학대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신체학대의 경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체벌이나 구타를 더 많이 한다는 Straus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셋째, 음주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어머니보다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일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학대의 위협이 높게 나타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의 알콜이나 약물남용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하며(Shultz, 2001), 200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연구결과에서 학대행위자의 11.7% 정도가 알콜 및 약물남용인 것을 볼 때 알콜과 아동학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술을 자주 마시는 어머니들은 자기통제력이 부족하고 우울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아동에게 해를 입힐 가

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보다 학대하는 경우가 더 잦았다. 이는 배우자가 싫으면 결혼생활을 후회하게 되고, 결국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걸림돌로 여기게 되어 힘없는 자녀를 속죄양으로 삼고 불만족을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표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다섯째, 부모-자녀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거나 자녀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경우 혹은 아이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아 전반적으로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학대가 잦다고 보여진다. 특히 아이가 자주 울고 짜증내거나 부모를 성가시게 할 때는 매우 심각한 신체학대인 폭행 및 상해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아이가 미성숙하고 허약한 체질 또는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들이 매우 심각한 학대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아동의 행동을 자주 통제하고 강압적이며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Abidin (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여섯째, 부모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주변에 도와줄 친·인척이 있거나 좋은 이웃이 있어 정보나 충고를 제공해주고, 방안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더 높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학대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일곱째,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크기, 결혼가족 등의 가족유형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2세대 가정이나 편모가정 등

에서 방임되는 경향이 높았고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신체학대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는 다양한 변수, 즉 아동의 연령, 그리고 부모의 음주정도,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등 아동 및 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지지체계, 가족환경 특성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학대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에 따른 아동학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다른 변수들보다 아동학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아동학대와 상관이 높은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부모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아동학대와 상관이 높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들 대부분이 실제 자녀를 학대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로서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부모는 학대를 받지 않았던 부모보다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태도를 접할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어 자신이 양육받았던 것처럼 자녀를 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동 및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환경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아동학대 감소 및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의 위험이 높은 가

정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학대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위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여러가지 특성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아동을 보호할 책임있는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의 결론에 덧붙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방임에 국한하였는 바, 아동학대나 방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 외의 타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에 대한 가해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방임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를 각각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이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정방문하여 면접이 가능한 부나 모 중 한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면접대상을 통한 간접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직접조사에 의한 응답자 자신의 반응과 배우자에 의해서 보고되는 반응은 응답자의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은주(1977).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2). 200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서혜영(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현황-병원상황에서-. *정신건강연구*, 6, 53-65.
- 안동현(2002). 아동학대의 특수한 문제와 개입. 아동학대전문상담원 과정.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
- 안혜영(1998).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측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연(199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6-39.
- 이재연 외(2000). 한국의 아동학대실태에 관한 연구 I. *아동권리연구* 4(2), 110.
- 이주희, 이양희(2000). 아동 및 부모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4(2), 113-123.
- 임현정(1995). 부모의 피학대 경험과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순 외(2002). 아동학대예방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지주예(2002).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영희(1983).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kills : Trainer's manual* (2nd ed).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 Abidin, R. R.(1992).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 Test Manual*.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Adler, B., & Fransesca, M.(1999). Explaining physical child abuse by biological mothers, biological fathers, and stepfa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boro.
- Forrester, D.(2000). Parental substance misuse and child protection in a British sample. *Child Abuse Review*, 9, 235-246.
- Gelle, R. J.(1997).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이동원 외(역), 서울 : 길안사.
- Shultz, S. K.(2001). Child physical abuse : Relationship of parental substance use to severity of abuse and risk for future abu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 Straus, M. A., & Gelles, R. J.(1990b). How violent are American families? Estimates from the national family violence resurvey and other studies. in M. A. Straus & R. J. Gelles(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 145 families*(pp. 95-112). New Brunswick, NJ : Transaction Publishers.
- Straus, M. A.(1994). *Beating the Devil out of them : Corporal Punishment in American families*.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Straus, M. A.(1995). *Manual for the Conflict Tactics Scales*. Durham, NH : Family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Straus, M. A.(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 *Child Abuse & Neglect*, 22, 249-270.